

## 돌봄의 끝, 삶의 시작

백영경

코로나 19 이후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돌봄이라는 용어가 유행하는 것은 실제로 세계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돌봄에 대한 논의는 시대의 화두이자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돌봄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돌봄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연 돌봄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돌봄 담론이 확장되고 새로운 실천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돌봄 위기를 인지할수록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몸의 변화나 삶의 방식 변화, 그 과정이 동반하는 돌봄은 젊음과 즐거움을 높이 보는 사회에서 달가운 주체가 아니다.

### 주요 논의내용

- 돌봄을 이야기하는 어려움/돌봄의 어려움
- 돌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 돌봄 논의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돌봄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돌봄(care)이 분석적 개념/철학적 개념인 동시에 돌봄이 일어나는 사회적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같은 돌봄 이야기 같아도, 서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실도 다르고, 철학적으로도 계보가 다른 논의들이 혼재되어 있다. 영어에서도 어려운 문제지만, 한국어에서는 현재 돌봄의 행위를 지칭하는 caregiving과 동사이자 명사인 care가 모두 돌봄으로 번역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어떤 사람은 간병이나 육아, 가사노동처럼 구체적인 노동을 누가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과연 돌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돌봄의 철학적인 차원에 집중해서 과연 그 노동이 현실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심하다.

돌봄을 이야기할 때의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돌봄을 너무 좋은 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육아나 간병같은 돌봄 노동에 대해서 가지는 부담과 돌봄에 대한 아름다운 담론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돌봄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를 자주 보게 된다. 돌본다는 경험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돌봄을 사회화하자고 하거나 민주적으로 배분하자고 할 때 흔히 돌봄은 내가 하기엔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 우려가 있다.

구체적인 인간 경험으로서의 돌봄은 매우 분열적인 경험인 경우가 많다. 감정적으로는 한편으로 늙은 부모나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느껴지면서도, 돌보는 과정에서 과거 쌓였던 감정이나 잊었던 분노가 떠오르면서 애증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담론적으로 돌봄은 한편으로는 의미와 윤리, 연대와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와 연결되지만 동시에 갈등유발, 복잡, 딜레마, 좌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가치와 연결되어 논의된다. 경험적으로도 지금 내가 하는 돌봄이 정말 제대로 된 돌봄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을 흔히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열은 인간의 조건이며, 이를 무시하는 담론과 정책이 돌봄 하는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

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화인류학과 과학기술학, 여성학의  
언저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의료와 탈성장, 토착성, 돌봄과  
일상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며, 말과  
세계의 관계에도 관심이 많다.

10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환자와 지칠 대로 지친 보호자를 보살피는 간병 로봇이 자신의 돌봄대상 중 누구를 살려야 할지 고뇌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간호중>(감독 민규동, 2020)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를 생명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한다면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같은 쟁점에 주목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쟁점들보다 우리가 돌봄에서 기대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 영화의 원작은 김혜진의 SF소설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2017)이다. 원작의 남성보호자는 여성이 되고, 돌봄 로봇들은 모두 아내나 딸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돌봄이란 단지 신체적인 필요에 반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람의 섬세한 보살핌이기 때문이다.

로봇에 맡겨놓고도 보호자가 긴 간병에 자살을 생각할 만큼 어려운 게 돌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다운 죽음에서 나를 돌봐주는 손길은 빠질 수 없다. 영화는 돌봄 로봇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고급형과 보급형으로 나뉘고, 언어 기능이 부착된 높은 수준의 돌봄은 고급형에서만 가능한 현실을 보여준다. 돌봄을 둘러싼 격차는 실제로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는 부분이다. 돌봄 노동이 고된 건 육체적으로도 힘든 노동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실제로는 눈앞에 있는 타인,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은 고유한 특성과 개별적 필요를 가진 인간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필요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에서 로봇은 환자에게 끝없이 긴 잠에서 깨어나는 공주의 이야기나, 불멸의 존재들,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 가운데 성격이 다른 하나가 다음의 시다. 오늘의 강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의 이 시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 시는 번역되어 있기는 한데,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서 폴란드 원어와 영어를 참고해서 강연자가 직접 번역한 것이다. 주인공이 읽고 있는 이 시는 불멸이 아니라 필멸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품고 있어서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며, 두려움 대신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이다. 삶이란 무엇이며,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돌봄이란 사실 삶의 어떤 차원을 끌어안는 이야기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받거나 불안이 사라진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절대시 함으로써 실제로는 모두가 타인의 죽음을 바라는 세계,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 두 번은 없다

비스와바 쉘보르스카 Wislawa Szymborska (1923~2012)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태어나고  
죽음에 규칙이란 없지.

세상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뒤처진 학생이라 해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다시 듣기는 없어  
반복은 없거든

어떤 날도 어제의 반복은 아니야  
어떤 두 밤의 황홀함도 똑같지 않고  
어떤 입맞춤도 똑같은 두 번은 없고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는 눈길도 똑같이 두 번은 없어

어제 누군가 네 이름을 큰 소리로 말했을때  
네 이름소리만 들어도 나는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내게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지

오늘의 나는 너를 내 옆에 두고도  
벽을 쳐다보며 묻는 중이야  
장미? 장미였다고?  
꽃 이야기였던가? 아니면 장밋빛 보석?

사악한 시간이며, 그대는 왜 쓸데없는  
불안으로 가득한가  
시간, 당신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나갈 것이고  
시간, 당신이 지나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

비록 서로가 지독히 다를지라도  
서로 끌어안고 웃으면서  
하나 되길 추구하는 게 나올거야  
마치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일시  
2023년 7월 3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